

## 분석적-종합적 사고 양식이 고의성 판단에 미치는 영향: 범죄 전형성의 역할\*

김 세 현<sup>1)</sup> 허 태 균<sup>2)</sup> 최 승 혁<sup>†</sup>

본 연구는 문화적 특성 중 하나인 분석적-종합적 사고 양식이 고의성 판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 과정에서 범죄 사건의 전형성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사건 가해자 및 피해자의 도덕적 특성을 바탕으로 범죄의 전형성을 다르게 조작한 사건에서 고의성 판단의 심리적 기제를 확인하였다. 연구 결과, 사람들은 범죄 사건의 전형성이 높을수록 고의성을 높게 판단하였다. 또한, 상대적으로 종합적 사고 양식을 보이는(그리고 인과성과 변화 인식이 높은) 사람들은 사건 가해자의 고의성을 낮게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분석적-종합적 사고 양식은 범죄의 전형성과 상호작용하여 고의성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구체적으로 종합적 사고를 하는(그리고 인과성이 높은) 사람들은 전형적인 사건에서는 가해자의 고의성을 높게 판단한 반면, 비전형적인 사건에서는 고의성을 낮게 판단하였다. 이 결과는 분석적 사고에 비해 종합적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 가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도덕적 특성을 고려한 범죄 전형성에 근거한 고의성 판단을 더 강하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의의와 함께 분석적-종합적 사고 양식과 범죄 전형성 및 고의성 판단과의 관계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요어 : 분석적-종합적 사고 양식, 범죄 전형성, 고의성 판단

\*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9S1A5B5A07112295).

1) 고려대학교 심리학부 박사

2) 고려대학교 심리학부 교수

† 교신저자 최승혁, (55338) 전북 완주군 삼례읍 삼례로 443 우석대학교 심리학과,

E-mail : daybreak492@woosuk.ac.kr



Copyright ©2023, The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of Culture and Social Issues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형사사건에서의 고의성 판단은 행위자의 유무죄나 양형 판단에 앞서 이루어지는 주요 사법판단이다. 그 중요성이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성 여부를 결정하는 행위 당시 행위자의 욕망(desire)과 예견 가능성(foresight)을 제 삼자가 사실 그대로 알기 힘들다는 형사사건의 특수성으로 인해 사법 판단에서의 고의성 판단은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최승혁과 허태균(2020a)은 고의성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요인으로서 행위자의 도덕적 특성의 중요성을 제안하였다(도덕적-특성 모델). 이는 행위가 동일하더라도 행위자의 도덕적 특성이 나쁘다고 추론될 때, 고의성 수준을 높게 지각하는 것(Hughes & Trafimow, 2012; Nadelhoffer, 2006)을 의미한다.

최승혁과 허태균(2020b)은 도덕적-특성 모델을 확장하여, 행위자의 도덕적 특성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도덕적 특성과 둘 간의 역동성이 고의성 판단에 영향을 미침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고의성 판단 정도는 행위자와 피해자의 도덕적 특성과 둘 간의 역동으로 구성되는 지각된 범죄 전형성에 의해 결정된다. 이는 고의성 판단에서 형사사건 내 인물들의 도덕적 특성과 같은 주변 맥락 정보의 역할이 중요해짐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가해자의 도덕적 특성과 피해자의 도덕적 특성이 모두 나쁜 경우에 고의성 판단이 가장 높고, 가해자의 도덕적 특성이 좋고, 피해자의 도덕적 특성이 나쁜 경우에 고의성 판단이 가장 낮았다. 또한 도덕적 특성 모델에 따른 고의성 판단은 범죄 심각성 수준에 관계없이 일관적이었다(최승혁, 2020).

형사사건에서 고의성 판단은 판단자의 추론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판단자의 인지 양식에 따라 그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단순히 가해

자에게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정보와 둘 간의 역동에 따라 고의성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주어진 정보를 얼마나 종합적이고 확장적으로 처리하는지가 중요하다. 이러한 논리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고의성 판단에 대한 판단자의 분석적-종합적 사고 양식의 영향력을 확인하였다.

분석적-종합적 사고 양식은 문화에 따른 인지 양식의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 제안되었고, 서양 문화의 분석적 사고와 동양 문화의 종합적 사고를 구분하였다. 비록 분석적-종합적 사고 양식이 동양과 서양의 문화 비교를 통해 이론적 타당성을 확보해왔으나, 문화가 이를 구분하는 유일한 결정 요인은 아니다. 동일한 문화권에 속해 있더라도 사고 양식의 개인차가 존재할 수 있으며(Choi et al., 2007), 동일한 사람도 환경 맥락에 따라 사고 양식이 달라질 수 있다(Kuhnen & Oyserman, 2002; Zhou et al., 2012). 이로 인해 분석적-종합적 사고 양식을 측정하는 도구(분석적-종합적 사고양식 척도: Choi et al., 2007)가 개발되었고 지금까지 다수의 연구에서 활용되고 있다.

분석적-종합적 사고 양식 척도는 네 개의 하위 요인(인과성, 반대에 대한 태도, 변화 인식, 주의 소재)으로 구성된다(Choi et al., 2007). 각 하위 요인을 중심으로 분석적 사고와 종합적 사고 간의 차이를 살펴보면, 우선 종합적 사고자는 인과성을 높게 지각하는 반면, 분석적 사고자는 인과성을 낮게 지각한다. 인과성은 어떤 사건에 대한 인과 관계를 추론함에 있어서 연결성과 관계성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나타낸다(Choi et al., 2007). 그리고 반대에 대한 태도는 상반된 것을 더 잘 수용하고, 양극에 위치하기보다는 중도의 위치를 선호하는 경향을 나타낸다(참고, 중용: 안도연,

이훈진, 2006, 2007). 종합적 사고는 반대에 대한 태도가 높은 반면, 분석적 사고는 반대에 대한 태도가 낮다. Peng과 Nisbett(1999)에 의하면, 종합적 사고 성향이 강한 문화권에서는 변증론법적인 주장을 더 선호하는 반면, 분석적 사고 성향의 문화권에서는 이를 선호하지 않았다. 또한, 변화 인식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떤 대상이 순환론적으로 변화할 것이라고 지각하는 정도를 나타낸다. 변화 인식 차이는 세상의 모든 요소가 연결되어 있으며, 각 요소들 간의 역동성이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는 동양의 인식과 어떤 사물의 근본 속성은 고정적이고 안정적이며, 시간이 지남에도 크게 변화하지 않을 것이라는 서양의 인식 차이에서 비롯된다(Choi et al., 2007). 일관된 추세를 가진 세계 경제 성장률이나 세계 암 사망률과 같은 거시적인 흐름에 대해, 추세가 유지될 것이라는 응답은 분석적 사고에서, 추세가 반전될 것이라는 응답은 종합적 사고에서 더 많이 나타났다(Ji et al., 2001). 그리고 주의 소재는 어떤 대상을 지각함에 있어서 대상과 그 대상이 놓인 주변 환경과의 상호작용까지 복합적으로 고려하는지를 설명한다. 종합적 사고는 장 의존적(field dependent)인 반면, 분석적 사고는 대상 의존적(object dependent)이다. 지각 과제에서의 주의 할당을 측정하면, 동양인은 중심 대상 외에도 배경이나 주변 맥락에도 주의를 기울이는 것으로 나타났다(Masuda & Nisbett, 2001, 2006; Morris & Peng, 1994).

즉, 분석적 사고와 종합적 사고는 정보를 지각하고 처리함에 있어서 주의를 어디에 두는지(대상: object vs. 장: field)에 따라 지각하는 정보 간 관계성(낮음 vs. 높음)의 차이가 나타나고, 이를 통해 구성되는 인과 모형의 복잡성(단순함 vs. 복잡함) 정도가 다름에 따라 추

론과 판단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여러 연구에서 종합적 사고를 하는 사람이 분석적 사고를 하는 사람에 비해 대응 편향(Choi & Nisbett, 1998)과 근본적 귀인 오류(Choi et al., 1999; Lee et al., 1996; Morris & Peng, 1994; Wong-On-Wing & Lui, 2007)를 낮은 수준으로 나타냄을 보고했다. Choi와 Nisbett(1998)은 서로 다른 상황(찬반 선택 vs. 찬반 지정)에서 사형제도에 관한 찬반 의견을 쓴 글을 보고 글쓴이의 태도를 추론하게 하였을 때, 종합적 사고를 하는 한국인이 미국인에 비해 상황에 따른 태도 추론 정도의 차이가 컸음을 밝혔고(연구 1), 주어진 상황적 제약이 강할수록 두 문화권 간의 차이가 커지는 것을 밝혔다(연구 2). 그리고 Choi와 Nisbett(1998)의 방법을 기반으로 한 도덕 추론 과제(Wong-On-Wing & Lui, 2007)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분석적 사고를 하는 사람에 비해 종합적 사고를 하는 사람이 행위자의 내적 속성과 함께 외부 맥락 정보를 더 많이 고려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종합적 사고는 인과 추론을 위한 더 많은 양의 정보를 고려한다는 점(Choi et al., 2003)도 이를 뒷받침한다. Choi 등(2003)은 종합적 사고를 하는 한국인이 분석적 사고를 하는 미국인에 비해 타인의 일탈적 행동(deviant behavior) 혹은 친사회적 행동(prosocial behavior)에 대한 동기 추론을 수행함에 있어서 더 많은 정보를 고려하는 것을 확인하였다(연구 1-3). 나이가 종합적 사고에 따라 고려하는 정보의 양이 늘어남에 따라 내적 귀인보다는 외적 귀인의 정도가 증가함을 밝혔다(연구 4).

이처럼 추론 과제에서 사용하는 정보의 양이 비교적 많음에도 불구하고, 종합적 사고를 하는 사람은 정보 간 연결성을 높게 지각하기

때문에, 관련성이 없는 정보를 접했을 때에도 희석효과(Nisbett et al., 1981)가 적게 나타난다(봉세인, 박혜경, 2016). 상대방의 유능성과 도덕성에 대한 인상 형성을 할 때, 관련 없는 정보의 양이 늘어남에 따라 분석적 사고를 하는 사람은 인물의 유능성과 도덕성을 낮게 추론하는 희석효과를 나타내는 반면, 종합적 사고를 하는 사람은 관련 없는 정보의 양에 따라 추론 결과가 달라지지 않았다. 즉, 종합적 사고를 하는 사람은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정보에 대해서도 핵심 정보와 연결하여 추론 과제와의 연관성을 높게 지각했을 수 있으며, 맥락 전체의 관점에서 파악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관련 없는 정보의 희석효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종합적 사고를 하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맥락에 초점을 맞추고, 관계성을 중심으로 정보를 종합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범주화 과제(triad categorization task: Chiu, 1972; Ji et al., 2004; Norenzayan et al., 2002)에서도 잘 드러난다. 범주화 과제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합적 사고는 대상 간 관계와 맥락 정보를 중심(장 의존적 사고)으로 범주화를 하는 반면, 분석적 사고자는 대상의 속성을 중심(대상 의존적 사고)으로 범주화를 하였다. 즉, 종합적 사고는 분석적 사고에 비해 요소 간 관계성을 높게 지각하여, 맥락 정보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이는 것(Masuda & Nisbett, 2001, 2006; Morris & Peng, 1994)을 알 수 있다. 기존 연구들은 일관되게 종합적 사고를 하는 사람이 분석적 사고를 하는 사람에 비해 맥락 정보를 함께 고려하는 종합적 인과 모형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고의성 판단이 결과에 대한 내부 귀인을 어느 정도 하는지(Genschow et al., 2017; Genschow & Lange, 2022)와 같은 추론 양식과 관련이 깊

다는 점과 사고 양식에 관한 기존 연구 결과를 고려해봤을 때, 종합적 사고자가 직관적인 가해자에 대한 정보를 넘어 피해자 정보와 그들 간의 다양한 조합의 영향을 더 받아 분석적 사고자에 비해 행위자의 고의성 정도를 더 낮게 지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분석적-종합적 사고 양식의 하위 요인인 인과성, 반대에 대한 태도, 변화 인식, 주의 소재도 강할수록 고의성 정도를 낮게 지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으로 정보들 간의 연결성과 관계성을 높게 지각하고(높은 인과성), 반대의 정보에 대한 수용도가 높고(높은 반대에 대한 태도), 대상의 변화를 순환론적으로 인식하고(높은 변화 인식), 부분보다는 맥락 전반에 초점을 맞출수록(높은 주의 소재) 고의성 판단을 낮게 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도덕적-특성 모델이 맥락 정보의 활용 정도와 관련이 높다는 점(최승혁, 허태균, 2020a 논의)을 고려해보면, 개인의 사고양식에 따라 도덕적-특성 모델의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다. 도덕적 특성 모델은 범죄 사건에 대한 고의성 판단이 가해자의 도덕적 특성뿐만 아니라 둘 간의 역동까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추론의 결과물임을 제안한다. 즉, 사건 내 인물의 특성 정보를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 간 연결성을 고려한 전체적인 맥락에 의거한 판단이 주요함을 나타낸다. 따라서 부분보다는 전체 맥락을 중요시하고, 요인들 간의 관계성을 높게 지각하는 종합적 사고가 사건 내 맥락 정보의 종합적 고찰을 요구하는 도덕적-특성 모델에 기초한 고의성 판단을 더 강하게 나타낼 수 있다. 즉, 범죄 전형성의 수준에 따른 고의성 판단 정도의 차이가 분석적 사고를 하는 사람에 비해 종합적 사고를 하는 사람에서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

한편, 사법판단에 대한 '이야기 모형(story model: Pennington & Hastie, 1986; 1993)'에 의거하면, 범죄 사건의 전형성이 낮다는 것은 개연성(plausibility)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측면에 초점을 맞추면, 종합적 사고가 다른 방향의 영향력을 미칠 가능성을 제기할 수 있다. 종합적 사고는 상반된 정보를 더 잘 받아들이고 상대적으로 중도의 위치를 선호하며(Peng & Nisbett, 1999), 일관적 변화보다는 순환론적 변화를 예측한다(Choi et al., 2007). 따라서 종합적 사고를 하는 사람들은 예상하지 못한 결과 혹은 변칙적인 상황에 더 적응적일 수 있다. 종합적 사고가 상대적으로 높은 사후과잉확신편향을 보이는 것(Choi & Nisbett, 2000)이나 기존 추세와 다른 결과를 예측하는 경향(Ji et al., 2001)이 이러한 특성을 반영한다. 이와 같은 측면을 고려했을 때, 종합적 사고를 하는 사람은 비전형적 사건일지라도 다양한 가능성의 연결고리를 추론하여 개연성을 그리 낮지 않게 지각함으로써 전형적 사건과 비전형적 사건 간 고의성 판단 차이가 크지 않을 가능성 또한 존재한다.

이처럼 고의성 판단에 대한 분석적-종합적 사고양식과 도덕적-특성 모델에 따른 전형성 간의 상호작용은 일관된 방향으로 예측하기 어렵다. 그러나 맥락 정보를 더 많이 활용하고, 전체론적인 사고를 선호한다는 종합적 사고의 전반적인 특성을 고려했을 때, 도덕적-특성 모델에 의거한 고의성 판단이 발생할 것이라는 전자의 논리가 합당해 보인다. 또한, 범죄 사건의 고의성은 유무죄 판결의 직접적 요인이 된다는 그 의미와 중요성으로 인해, 아무리 종합적 사고를 하더라도 비전형적 사건을 보고, 개연성을 인식할 때 비약적인 추론

을 수행할 가능성은 낮다. 그보다는 자신의 지식이나 경험에 근거한 판단이 더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다. 따라서 종합적 사고를 하는 사람은 사건의 고의성 판단에서 사건 전형성에 더 민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명확히 확인하기 위해 고의성 판단에 대한 분석적-종합적 사고 양식 및 그 하위 요인과 범죄 전형성 간의 관계 그리고 그 영향을 분석하였다.

## 연구 가설

본 연구는 형사사건의 고의성을 판단할 때, 판단자의 분석적-종합적 사고 양식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도덕적-특성 모델에 근거한 범죄 전형성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확인하였다. 우선, 분석적-종합적 사고 양식의 특성에 의거하여, 종합적 사고가 강할수록 고의성을 낮게 판단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또한, 범죄 전형성의 역할은 맥락 정보의 활용 정도로 결정된다는 것을 고려하여, 종합적 사고자가 분석적 사고자에 비해 사건 가해자의 고의성을 더 높게 판단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가설 1: 종합적 사고가 높을수록 고의성 판단 정도가 낮을 것이다.

가설 1-1: 인과성이 높을수록 고의성 판단 정도가 낮을 것이다.

가설 1-2: 반대에 대한 태도가 높을수록 고의성 판단 정도가 낮을 것이다.

가설 1-3: 변화 인식이 높을수록 고의성 판단 정도가 낮을 것이다.

가설 1-4: 주의 소재가 높을수록 고의성 판

단 정도가 낮을 것이다.

가설 2: 고의성 판단에 대한 개인의 사고 양식 정도와 전형성 간의 상호작용효과가 유의할 것이다.

가설 2-1: 종합적 사고가 강할수록 범죄 전형성에 따른 고의성 판단 차이가 더 클 것이다.

## 방 법

### 연구 참여자

본 연구는 고려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로부터 승인(KUIRB-2021-0297-01)을 받은 뒤 진행되었다.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온라인 조사업체를 통해 참가자가 모집되었다. 연구 참가자는 조사기관으로부터 연구 목적을 포함한 간략한 연구 안내문을 제공 받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후 온라인 실험에 참여하였다. 모든 절차가 종료된 후, 참가자들은 서면을 통해 사후설명을 제공 받았고, 자료 이용에 동의하였다.

모집된 연구 참가자는 총 395명이었다. 남성은 214명, 여성은 181명이었고, 연령은 평균 44.35세(표준편차 11.07, 범위 19세~83세)이었다.

### 범죄 시나리오 및 측정 도구

#### 범죄 시나리오

참가자들은 범죄 사건의 전형성을 다르게 조작한 두 가지 사망 사건 시나리오 중 한 조건에 무선택당되었다. 구체적으로, 범죄의 전형성은 최승혁과 허태균(2020b)의 연구 2에서

범죄 사건의 전형성이 높게 측정된 조건(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나쁜 도덕적 특성을 가진 조건)과 낮게 측정된 조건(가해자는 좋은 특성을, 피해자는 나쁜 특성을 가진 조건)을 인용하여 조작하였다(시나리오 내용은 부록 1 참고).

#### 분석적-종합적 사고 양식

분석적-종합적 사고 양식을 측정하기 위해 한국인 특성 연구 보고서(허태균 등, 2012)에서 사용한 것과 동일한 단축형 척도를 사용하였다. 허태균 등(2012)은 원 척도(Choi et al., 2007)의 타당도 분석 결과의 요인부하량을 기준으로 각 하위 요인별로 상위 3문항씩을 선정하여 측정하였고, 문항 간 내적 신뢰도(Cronbach's  $\alpha$ )는 단축형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Choi et al., 2007), 적절한 수준이었다(전체 .81, 인과성 .75, 반대에 대한 태도 .61, 변화 인식 .71, 주의 소재 .69).

인과성 요인은 어떤 사건의 원인을 추론할 때 행위자의 내적 요인에 초점을 맞추는지 또는 행위자의 내적 요인과 더불어 환경 맥락의 외부 요인 간 관계 및 역동에 초점을 맞추는지를 나타낸다. 예시 문항은 '세상의 모든 것은 인과 관계로 묶여있다'이다. 반대에 대한 태도 요인은 모순적이거나 반대되는 사안과 관련하여 이분법적인 태도를 보이는지 또는 중도적인 태도를 보이는지를 나타낸다. 예시 문항은 '양 극단보다 중도를 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이다. 변화 인식 요인은 시간에 따라 어떤 대상이 변화하는 방식을 인식함에 있어서 특정한 방향성을 가진 일관적인 변화를 가정하는지 또는 순환론적인 변화를 가정하는지를 나타낸다. 예시 문항은 '세상의 모든 현상은 예측 가능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

다(역채점)이다. 주의 소재 요인은 어떤 대상을 지각함에 있어서 대상 그 자체에만 초점을 맞추는지 또는 대상과 그 대상이 놓인 주변 환경과의 역동까지 복합적으로 고려하는지를 나타낸다. 예시 문항은 '부분 부분보다는 전체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이다. 모든 문항은 7점 리커트 척도(1: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 7: 매우 동의한다)로 측정하였고, 값이 클수록 종합적 사고 양식이 강함을 의미한다.

본 분석에 앞서 본 연구에서 사용한 12문항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모델 적합도 지수 수준은 준수하였다<sup>1)</sup>(CFI=.942, TLI=.920, SRMR=.042, RMSEA=.054). 본 연구에서 척도의 문항 간 내적 신뢰도는 전체 .58, 인과성 .68, 반대에 대한 태도 .54, 변화 인식 .65, 주의 소재 .60으로, 높지는 않지만 수용 가능한 수준이었다(George & Mallery, 2003 참고).

### 범죄의 전형성 및 고의성

참여자들은 범죄 사건 시나리오를 읽은 후 범죄의 전형성과 고의성 문항에 응답하였다. 우선 범죄 사건의 전형성 정도를 묻는 문항 [김모씨와 이모씨 같은 사람들이 만나 위와 같은 사건이 벌어지는 상황이 얼마나 그들의 특성을 반영하는 전형적인 상황이라고 생각하십니까?]이 제시되었다. 범죄 전형성은 최소 0%부터 최대 100% 사이의 값에서 응답하게끔

1) 평균분산추출(AVE) 값이 상관계수 제곱 값보다 큰 지를 통해 판별타당도를 살펴보고, 표준화된 요인 부하량을 기준으로 집중타당도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판별타당도는 적절하게 확보되었음(AVEs > .299,  $f^2 < .258$ )을 확인하였고, 집중타당도의 경우에는 1문항(반대에 대한 태도;  $\lambda = .455$ )을 제외하고는 모두 .50이상이었기에 수용 가능한 수준임을 확인하였다.

하였다. 그 뒤, 가해자(김모씨)의 고의성을 어느 정도로 판단하는지를 측정하기 위해 가해자(김모씨)가 피해자(이모씨)를 고의적으로 죽였다는 진술("김모씨는 이모씨를 고의적으로 죽였다")에 동의하는 정도를 10점 척도(0: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10: 전적으로 동의한다)에 응답하도록 제시하였다.

###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와 JAMOVI 통계 프로그램으로 분석하였다. 범죄 사건의 전형성에 대한 조작점검은 독립표본  $t$ -검증을 통해, 고의성과 주요 변인 간 관계는 *Pearson* 상관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또한, 고의성 판단에 대한 분석적-종합적 사고 양식과 범죄 전형성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위계적 중다회귀분석(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고, 상호작용효과를 해석하기 위해 단순 기울기 분석(simple slope test)을 실시하였다.

## 결 과

### 조작 점검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범죄 사건의 전형성에 대한 조작점검을 수행하고자 집단 간  $t$  검정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가해자의 도덕적 특성을 나쁘게 조작한 조건이 좋게 조작한 조건보다 더 범죄 전형성 점수가 높았다(나쁜 특성 조건,  $M=62.29$ ,  $SD=24.04$ ; 좋은 특성 조건,  $M=48.61$ ,  $SD=24.34$ )( $t_{(393)}=5.617$ ,  $p<.001$ , Cohen's  $d=.565$ ). 즉, 가해자의 도덕적 특성이 좋고 나쁨에 따라 범죄 사건의 전형성 조작이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변인 간 상관관계

본 분석에 앞서 고의성 판단 변인과 범죄의 전형성, 분석적-종합적 사고 양식 및 기타 인구통계학적 변인이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고의성 판단 변인은 범죄 전형성과 정적 상관을 보였다( $r=.406, p<.001$ ), 분석적-종합적 사고 양식( $r=-.113, p=.025$ )과 그 하위 요인인 인과성( $r=-.105, p=.037$ ) 및 변화 인식( $r=-.134, p=.007$ )과는 부적 상관을 보였다. 그리고 범죄 전형성은 분석적-종합적 사고 양식( $r=-.120, p=.017$ ), 인과성( $r=-.113, p=.025$ ) 및 주의 소재( $r=-.110, p=.029$ )와 부적 상관관계에 있었다. 또한, 인구통계학적 변인인 성별 및 연령과 주요 변인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성별은 분석적-종합적 사고 양식( $r=.100, p=.046$ ), 반대에 대한 태도( $r=.092, p=.068$ ) 및 주의 소재( $r=.172, p=.001$ )와 정적 상관을 보였다. 연

령은 분석적-종합적 사고 양식( $r=.124, p=.014$ ), 인과성( $r=.128, p=.011$ ), 반대에 대한 태도( $r=.170, p=.001$ ) 및 주의 소재( $r=.303, p<.001$ )와는 정적 관계에 있었고 변화 인식( $r=-.244, p<.001$ )과는 부적 관계에 있었다(표 1 참고).

분석적-종합적 사고 양식과 고의성 판단

본 연구는 성별과 연령 같은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상관없이, 분석적-종합적 사고 양식과 범죄 사건의 전형성이 고의성 판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심이 있다. 따라서 고의성 판단에 대한 위계적 중다회귀분석(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은 성별과 연령을 통제한 상태에서 실시하였다. 본 분석에 앞서, 예측 변인 간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통제 변인을 포함한 모든 변인을 센터링(centering)하였다.<sup>2)</sup>

표 1. 고의성과 주요 변인 간 상관관계 ( $n=395$ )

	1	2	3	4	4-1	4-2	4-3	4-4	5
1. 성별	1								
2. 연령	.324***	1							
3. 범죄전형성	-.024	-.030	1						
4. 분석적-종합적사고	.100*	.124*	-.120*	1					
4-1. 인과성	.046	.128*	-.113*	.745***	1				
4-2. 반대태도	.092+	.170**	-.053	.698***	.505***	1			
4-3. 변화 인식	-.057	-.244***	-.005	.211***	-.165**	-.275***	1		
4-4. 주의 소재	.172**	.303***	-.110*	.653***	.447***	.508***	-.326***	1	
5. 고의성	-.052	-.081	.406***	-.113*	-.105*	.006	-.134**	.005	1
<i>M</i>	0.54	44.35	0.51	4.89	5.28	5.14	4.11	5.03	4.42
<i>(SD)</i>	(0.50)	(11.07)	(0.50)	(0.50)	(0.88)	(0.82)	(1.07)	(0.85)	(2.59)

주. 성별; 남(1), 여(0), 범죄전형성; 저(0), 고(1), + $p < .10$ , \* $p < .05$ , \*\* $p < .01$ , \*\*\* $p < .001$ .



회귀분석의 1단계 모형에는 성별과 연령을 투입하여 통제하였고, 2단계 모형에는 범죄 전형성 변인을, 3단계 모형에는 분석적-종합적 사고 양식 변인을, 4단계 모형에는 범죄 전형성과 분석적-종합적 사고 양식 간 이원상호작용효과 변인을 투입하였다. 본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은 입력(enter) 방법으로 수행하였고, 분석 결과는 표 2에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범죄 전형성 변인은 고의성 판단 변량의 16.3%를 설명하였고(2단계 모형:

$\Delta F_{(1, 391)}=76.730, p<.001$ ), 분석적-종합적 사고 양식 변인은 고의성 판단에 대한 설명량을 유의미하게 증가시키지 못했다(3단계 모형:  $\Delta F_{(1, 390)}=1.454, p=.229$ ). 그러나 범죄 전형성과 분석적-종합적 사고 양식 간 이원상호작용 변인은 고의성 판단 변량의 1.6%를 추가적으로 설명하였다(4단계 모형:  $\Delta F_{(1, 389)}=7.566, p=.006$ ). 따라서 성별과 연령을 제외한 최종 모형의 설명력은 18.2%로 나타났다( $F_{(5, 389)}=18.138, p<.001$ ).

표 2. 고의성 판단에 대한 분석적-종합적 사고 양식과 범죄 전형성의 효과

모형	변인	B	SE	$\beta$	p	R <sup>2</sup>	$\Delta R^2$	$\Delta F$ (p)	F (p)
1	(상수)	4.418	0.130						
	성별	-0.074	0.138	-.028	.593	.007	.007	1.454 (.235)	1.454 (.235)
	연령	-0.187	0.138	-.072	.175				
2	(상수)	4.415	0.119						
	성별	-0.057	0.126	-.022	.650	.170	.163	76.730 (<.001)	26.733 (<.001)
	연령	-0.161	0.126	-.062	.203				
	범죄전형성	<b>1.046</b>	<b>0.119</b>	<b>.404</b>	<b>&lt;.001</b>				
3	(상수)	4.415	0.119						
	성별	-0.048	0.126	-.018	.706				
	연령	-0.146	0.127	-.056	.249	.173	.003	1.454 (.229)	20.437 (<.001)
	범죄전형성	1.029	0.120	.397	<.001				
	분석적-종합적사고	-0.146	0.121	-.056	.229				
4	(상수)	4.455	0.119						
	성별	-0.046	0.125	-.018	.713				
	연령	-0.155	0.126	-.060	.219				
	범죄전형성	1.030	0.119	.398	<.001	.189	.016	7.566 (.006)	18.138 (<.001)
	분석적-종합적사고	-0.129	0.120	-.050	.283				
	범죄전형성 ×분석적-종합적사고	<b>.328</b>	<b>0.119</b>	<b>.126</b>	<b>.006</b>				

구체적으로, 범죄 전형성의 주효과가 나타났다(2단계 모형에서,  $\beta=.404, p<.001$ ). 즉, 사람들은 범죄 사건이 전형적이라고 지각할수록 사건 가해자의 고의성을 더 높게 판단하였다. 보다 중요하게, 분석적-종합적 사고 양식과 범죄 전형성 간 상호작용효과가 나타났다(4단계 모형에서,  $\beta=.126, p=.006$ ). 즉, 상대적으로 종합적 사고를 하는 사람들은 범죄의 전형성 수준에 따라 사건 가해자에 대한 고의성 판단의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났다(그림 1 참고). 이러한 상호작용효과를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 범죄 전형성 수준이 높거나 낮음에 따라 단순 기울기 분석(simple slope test)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범죄 사건의 전형성이 높은 경우에는 분석적-종합적 사고 양식 간의 차이가 없었지만, 범죄 전형성이 낮은 경우에는 종합적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 분석적 사고를 하는 사람들에 비해 더 사건 가해자의 고의성을 낮게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범죄전형성 낮음,  $\beta=-.176, t_{(389)}=-2.770, p=.006$ ; 범죄전형성 높음,  $\beta=.077, t_{(389)}=1.150, p=.252$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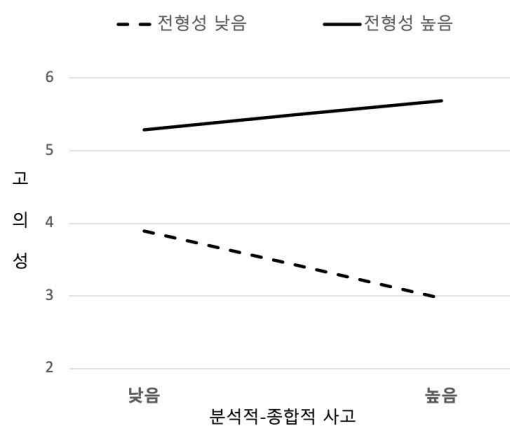


그림 1. 고의성 판단에 대한 분석적-종합적 사고 양식과 범죄 전형성 간 상호작용효과

### 분석적-종합적 사고 양식의 하위 요인과 고의성 판단

분석적-종합적 사고 양식은 네 개의 하위 요인(인과성, 반대에 대한 태도, 변화 인식, 주의 소재)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사고 양식의 영향력을 명확하게 확인하기 위해 하위 요인들을 모두 회귀모형에 투입하여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sup>3)</sup>

회귀분석의 1단계 모형에는 성별과 연령을 투입하여 통제하였고, 2단계 모형에는 범죄 전형성 변인을, 3단계 모형에는 분석적-종합적 사고 양식의 하위 요인들을, 4단계 모형에는 범죄 전형성과 분석적-종합적 사고 양식의 하위 요인들 간 이원상호작용효과 변인을 투입하였다. 분석 결과는 표 3에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범죄 전형성 변인은 고의성 판단 변량의 16.3%를 설명하였고(2단계 모형:  $\Delta F_{(1, 391)}=76.730, p<.001$ ), 분석적-종합적 사고 양식의 하위요인들은 3.4%를 추가적으로 더 설명하였다(3단계 모형:  $\Delta F_{(4, 387)}=4.182, p=.003$ ). 그리고 범죄 전형성과 분석적-종합적 사고 양식의 하위 요인 간 이원상호작용효과 변인들은 고의성 판단 변량의 3.2%를 추가적으로 설명하였다(4단계 모형:  $\Delta F_{(4, 385)}=3.999, p=.003$ ). 따라서 성별과 연령의 설명량을 제외했을 때 4단계 최종 회귀모형은 고의성 판단 변량의 22.9%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분산팽창지수(VIF)는 모두 1에 가까운 값을 보여 (성별 1.138, 연령 1.244, 범죄 전형성 1.020, 인과성 1.475, 반대에 대한 태도 1.598, 변화 인식 1.195, 주의 소재 1.635, 범죄 전형성×인과성 1.460, 범죄 전형성×반대에 대한 태도 1.595, 범죄 전형성×변화 인식 1.171, 범죄 전형성×주의 소재 1.535) 다중공선성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표 3. 고의성 판단에 대한 분석적-종합적 사고 양식의 하위 요인과 범죄 전형성의 효과

모형	변인	<i>B</i>	<i>SE</i>	$\beta$	<i>p</i>	<i>R</i> <sup>2</sup>	$\Delta R^2$	$\Delta F$ ( <i>p</i> )	<i>F</i> ( <i>p</i> )
1	(상수)	4.418	0.130						
	성별	-0.074	0.138	-0.028	.593	.007	.007	1.454 (.235)	1.454 (.235)
	연령	-0.187	0.138	-0.072	.175				
2	(상수)	4.415	0.119						
	성별	-0.057	0.126	-0.022	.650	.170	.163	76.730 ( $<.001$ )	26.733 ( $<.001$ )
	연령	-0.161	0.126	-0.062	.203				
	범죄전형성	<b>1.046</b>	<b>0.119</b>	<b>.404</b>	<b>&lt;.001</b>				
3	(상수)	4.415	0.117						
	성별	-0.066	0.125	-0.025	.598	.205	.034	4.182 (.003)	14.220 ( $<.001$ )
	연령	-0.285	0.131	-0.110	.030				
	범죄전형성	1.031	0.119	.398	$<.001$				
	인과성	<b>-0.303</b>	<b>0.141</b>	<b>-0.117</b>	<b>.033</b>				
	반대태도	0.071	0.147	.028	.628				
	변화 인식	<b>-0.381</b>	<b>0.127</b>	<b>-0.147</b>	<b>.003</b>				
	주의 소재	0.198	0.149	.076	.185				
4	(상수)	4.450	0.117						
	성별	-0.060	0.123	-0.023	.630	.236	.032	3.999 (.003)	10.784 ( $<.001$ )
	연령	-0.312	0.129	-0.120	.016				
	범죄전형성	1.031	0.117	.398	$<.001$				
	인과성	-0.273	0.140	-0.106	.052				
	반대태도	0.058	0.146	.022	.692				
	변화 인식	-0.335	0.126	-0.130	.008				
	주의 소재	0.185	0.148	.072	.211				
	범죄전형성×인과성	<b>0.453</b>	<b>0.141</b>	<b>.174</b>	<b>.001</b>				
	범죄전형성×반대태도	0.121	0.146	.047	.407				
	범죄전형성×변화인식	0.150	0.125	.058	.230				
	범죄전형성×주의소재	-0.212	0.144	-0.081	.141				

( $F_{(11, 383)}=10.784, p<.001$ ).

구체적으로, 범죄 사건이 전형적이라고 지각할수록 사건 가해자의 고의성을 높게 판단하였다(2단계 모형에서, 범죄 전형성  $\beta=.404, p<.001$ ). 보다 중요한 결과는 인과성과 변화 인식의 주효과가 나타났다는 것이다(3단계 모형에서, 인과성  $\beta=-.117, p=.033$ ; 변화 인식  $\beta=-.147, p=.003$ ). 즉, 가해자는 물론 환경 맥락과의 역동을 포함하여 사건의 인과 관계를 복잡하게 지각할수록(인과성이 높을수록), 그리고 세상의 모든 요소들이 연결되어 있어서 순환론적으로 세상이 변화한다고 인식할수록(변화 인식이 높을수록) 사건 가해자의 고의성이 더 낮다고 판단한 것이었다.

나아가, 분석적-종합적 사고 양식과 같은 패턴으로 인과성 요인과 범죄 전형성 간 상호작용효과가 나타났다(4단계 모형에서,  $\beta=.174, p=.001$ ). 즉, 상대적으로 인과성을 높게 지각하는 사람들은 범죄의 전형성 수준에 따라 사건 가해자에 대한 고의성 판단의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났다(그림 2 참고). 이러한 상호작용효과를 명확히 확인하기 위해 범죄 전형성 수준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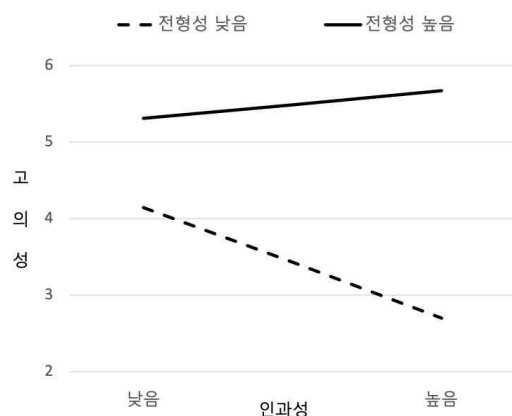


그림 2. 고의성 판단에 대한 인과성과 범죄 전형성 간 상호작용효과

높거나 낮음에 따라 단순 기울기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범죄의 전형성이 높은 경우에는 인과성 수준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전형성이 낮은 사건의 경우에는 인과성을 높게 인식하는 사람들이 낮게 인식하는 사람들에 비해 더 가해자의 고의성이 낮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범죄전형성 낮음,  $\beta=-.280, t_{(383)}=-3.658, p<.001$ ; 범죄전형성 높음,  $\beta=.070, t_{(383)}=0.906, p=.365$ ).

## 논 의

본 연구는 형사사건의 고의성 판단에 대한 분석적-종합적 사고 양식의 영향력을 범죄 전형성 수준을 중심으로 확인하였다. 우선, 종합적 사고 정도가 높을수록 고의성 판단이 낮아지는 부적 상관관계가 유의하였다(가설 1). 또한 분석적-종합적 사고 양식의 하위 요인 중 인과성(가설 1-1)과 변화 인식(가설 1-3)이 고의성 판단과 유의한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예상과 달리, 반대에 대한 태도(가설 1-2)와 주의 소재(가설 1-4)는 고의성 판단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또한 사건의 전형성 수준에 따라 종합적 사고와 고의성 판단 간의 관계가 다르게 나타나는 상호작용효과를 확인하였다(가설 2). 구체적으로 분석적 사고자는 사건의 전형성 수준에 따라 고의성 판단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지만, 종합적 사고자는 전형성이 높은 사건에서는 더 고의성을 크게, 낮은 사건에서는 더 고의성을 낮게 판단하여 전형성 수준에 따른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종합적 사고를 하는 사람이 분석적 사고를 하는 사람에 비해 도덕적 특성 모델에 의거한 전형

성의 영향을 더 받는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더불어 분석적-종합적 사고 양식의 하위 요인으로 동일한 분석을 진행하였을 때, 인과성 요인이 전체 분석적-종합적 사고 양식과 동일한 패턴의 결과를 산출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개인의 사고 양식에 따라 범죄 사건의 고의성 판단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고의성 판단에 주요한 역할을 하는 범죄 전형성의 영향력이 개인의 사고 양식에 의해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 결과의 의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설 1에서 예상한 것과 같이, 종합적 사고 정도가 높을수록 전반적인 고의성 판단이 낮아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분석적-종합적 사고 양식에 관한 기존 연구에 따르면, 종합적 사고를 하는 사람은 추론과 판단을 수행함에 있어서 분석적 사고를 하는 사람에 비해 더 많은 정보를 고려함(Choi et al., 2003)과 동시에 좀 더 복잡하고 복합적인 인과 모형을 추론한다. 즉, 종합적 사고가 높으면 행위자의 고의성을 추론하기 위해 주어진 범죄 사건 시나리오 내에서 다양한 정보를 활용할 가능성이 있으며, 더 복잡한 인과 모형을 추론한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의 시나리오에는 가해 행위만 묘사된 것이 아니라, 사건 시간, 사건 장소, 사건 내 인물의 도덕적 특성, 가해자의 주장과 검찰의 주장 등 다양한 정보가 복합적으로 서술되어 있었다. 따라서 범죄 전형성 수준과 상관없이, 종합적 사고가 높은 사람이 나타내는 낮은 고의성 추론 경향은 시나리오에 서술된 다양한 정보들 간의 연결성과 관계성을 기반으로 나타난 결과물일 수 있다. 특히, 분석적-종합적 사고 양식의 하위요인인 인과성과 고의성 판단 간의 유의한 부적 상관은 이와 같은 추론을 지지한

다. 인과성은 어떤 결과에 대한 원인을 추론할 때, 대상뿐만 아니라 주변 맥락 정보까지 포괄하여 고려하는 복합적이고 확장적인 추론을 수행하는 정도를 의미(Choi et al., 2007)하기 때문이다.

또한 변화 인식과 고의성 판단 간에도 유의한 부적 상관이 도출되었다. 변화 인식은 순환론적 변화를 지각하는 정도를 의미하는데, 이것 또한 주어진 정보 간 복잡한 상호작용을 고려한 결과물이라는 점(Choi et al., 2007; Peng & Nisbett, 1999)에서 인과성의 부적 관계의 결과와 동일한 맥락이다. 즉, 종합적 사고를 하는 사람은 범죄 사건 내 다양한 정보를 복합적으로 고려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고의성 판단을 내리는 것으로 생각된다. 인과성과 변화 인식은 범죄 전형성을 통제했을 때에도 부적 방향의 유의한 주효과가 확인되었고(표 3), 종합적 사고 정도와 고의성 판단 간의 부적 상관 결과와 일관됨으로써 고의성 판단에 대한 종합적 사고 정도의 부적 영향력을 지지하였다.

그런데 예상과는 달리, 반대에 대한 태도와 주의 소재는 고의성 판단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었다. 반대에 대한 태도와 주의 소재는 상관 분석뿐만 아니라, 회귀 모형에서도 유의한 효과를 나타내지 않았다. 시나리오는 동일한 사건과 그 결과에 대한 가해자와 검사의 상반된 주장이 공존한다. 반대에 대한 태도가 높으면 상반된 주장이 모두 옳을 수 있다는 중용의 태도가 나타날 수 있는 반면, 반대에 대한 태도가 낮으면 가해자 혹은 검사 중 어느 일방의 주장으로 더 기울어진 태도가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반대에 대한 태도가 낮다는 것은 가해자나 검사 중 특정 방향으로 기울어질 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판단자의 판단

이 양측의 주장 중 어느 일방으로 결정될 것이라는 의미이다. 따라서 반대에 대한 태도가 낮은 사람들의 평균 고의성 판단 점수는 결과적으로 중앙에 위치했을 수 있다. 즉, 반대에 대한 태도가 높고 낮음은 가해자(낮은 고의성을 주장)와 검사(높은 고의성을 주장) 중 하나의 방향으로 일관된 영향력을 미치지 못했을 수 있다.

마찬가지로 주의 소재도 높고 낮음에 따라 고의성 판단을 일관되게 예측하지 않을 수 있다. 주의 소재가 높으면 범죄 사건 내 정보를 분절적으로 인식하기보다는 전체 맥락에서 바라보는 것과 관련이 있고, 주의 소재가 낮으면 사건 내 정보를 분절적으로 인식하여, 부분 부분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 주의 소재가 높은 경우에는 사건의 전체 맥락을 바라봄에 따라 다양한 가능성(가해자가 고의로 해쳤을 가능성과 고의로 해치지 않았을 가능성)을 동시에 접할 수 있다. 반면에 주의 소재가 낮은 경우에는 서로 반대의 주장을 하고 있는 양측의 정보를 분절적으로 인식함에 따라 판단의 방향이 일관되지 않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가해자의 고의성을 지지하는 정보에 초점을 맞춘 판단자는 고의성을 높게 판단할 것이고, 반대로 가해자의 고의성을 기각하는 정보에 초점을 맞춘 판단자는 고의성을 낮게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주의 소재가 낮은 참여자의 고의성 판단 평균 점수는 반대에 대한 태도와 마찬가지로 결과적으로 중앙에 위치했을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 비추어볼 때, 반대에 대한 태도와 주의 소재는 인과성 및 변화 인식과 달리 종합적 사고 양식과 유사한 패턴의 결과가 도출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하위 요인들의 일관되지 않은 결과에 대한 또 다른 해석이 가능하다. 네 개의 하위 요인

(인과성, 반대에 대한 태도, 변화 인식, 주의 소재)은 결과적으로 인과모형의 복잡성 정도라는 논리적 연결고리를 기반으로 두 가지 사고 양식(분석적 사고 vs. 종합적 사고)을 구성하고 있다. 그러나 원인 추론과 결과 추론의 관점에 따라서 하위 요인의 역할을 변별할 필요가 제기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설선헤와 최인철(2009)은 분석적-종합적 사고양식이 파급효과 예측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하였다. 연구 결과, 종합적 사고 정도와 파급효과 크기 간 관계가 정적으로 나타났다. 즉, 종합적 사고 정도가 높을수록 특정 사건이 가지는 파급력이 더 크다고 여겼다. 이를 통해 설선헤와 최인철(2009)은 분석적-종합적 사고와 원인 추론에 관한 연구를 확장하여, 분석적-종합적 사고 양식에 따라 결과 추론 또한 달라질 수 있음을 제안했다. 그러나 여기서 주목할 점은 하위 요인 별 분석을 수행했을 때, 파급효과 크기와 관계가 나타난 것이 반대에 대한 태도와 주의 소재였고, 인과성과 변화 인식은 파급효과와 관계가 없었다. 즉, 반대에 대한 태도가 높고, 주의 소재가 높음에 따라 다양한 가능성을 추론함으로써 어떤 사건의 파급효과를 크게 지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와 본 연구 결과를 종합해서 추론해보면, 인과성과 변화 인식은 주어진 정보를 얼마나 복잡하고 종합적으로 처리하여 원인을 추론하는지와 관련이 있고, 반대에 대한 태도와 주의 소재는 주어진 정보를 통해 얼마나 다양한 결과를 추론할 수 있는지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 분석적-종합적 사고 양식에 대한 기존 연구는 네 가지 하위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물인 사고 양식(분석적 사고 vs. 종합적 사고)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는 것으로 진행되어왔다. 본 연구 결과와 설선헤와 최인철

(2009)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보았을 때, 분석적-종합적 사고 양식의 역할과 기능은 각각의 하위 요인별로 체계적으로 재조명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 결과 중 고의성 판단에 대한 분석적-종합적 사고와 범죄 전형성의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는 개인의 사고 양식에 따라 전형성이 다르게 기능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우선, 기존 연구(최승혁, 2020; 최승혁, 허태균, 2020b)와 동일하게, 가해자와 피해자의 도덕적 특성과 둘 간의 역동으로 인해 형성되는 사건의 전형성 정도에 따라 고의성 판단이 달라졌다(표2 내 전형성의 주효과). 전형성과 고의성 판단의 관계는 상관 분석에서도 정적인 방향으로 유의하였다. 즉, 기존 연구에서 검증한 바와 같이, 형사사건에서의 고의성 판단에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도덕적 특성과 둘 간의 역동에 따른 전형성 지각이 결정적 역할을 한다는 것을 재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고의성 판단에 대한 전형성이 가진 역할의 중요성이 개인의 사고 양식에 따라 다르게 기능할 수 있음에 주목하였고, 고의성 판단에 대한 범죄 전형성과 분석적-종합적 사고 간의 상호작용이 유의하게 도출됨에 따라 그러한 가능성이 실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구체적으로 분석적 사고 정도가 높으면 전형성 수준에 따른 고의성 판단의 차이가 적었지만, 종합적 사고 정도가 높으면 전형성 수준에 따른 고의성 판단의 차이가 컸다(가설 2-1).

즉, 종합적 사고를 하는 사람이 분석적 사고자에 비해 사건 가해자는 물론 피해자의 도덕적 특성 또한 모두 고려하여 고의성 판단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적 사고를 하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주변 맥락 정보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이고, 다양한 정보 간의 연결성과

관계성을 고려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도덕적 특성 모델에 따른 범죄 전형성에 민감하게 반응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앞서 상관 분석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인과성이 전체 종합적 사고 점수와 유사하게 범죄 전형성과의 유의한 상호작용을 나타냈다는 점은 이러한 추론이 타당함을 반영한다. 인과성의 상호작용효과는 다른 하위요인들 또한 동일한 회귀모형에 투입하여, 그 영향력을 통계적으로 통제된 상태에서 도출된 결과이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는 종합적 사고를 하는 사람이 범죄 전형성 수준에 따라 고의성 추론을 다르게 하는 주요 이유는 인과성 요인 때문임을 시사한다.

본 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형사사건에서의 고의성 추론에 대한 범죄 전형성의 역할이 판단자의 사고 양식에 따라 강화되거나 약화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범죄 전형성은 사건 내 인물의 도덕적 특성과 인물 간의 역동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출되는 결과물로, 부정적 결과를 유발한 가해자의 행위에 대한 개연성을 추론하는데 영향을 미친다. 즉, 범죄 전형성은 판단자가 주어진 사건 내 다양한 정보를 고려하는 동시에 정보들 간의 역동을 파악하여 전반적인 사건의 맥락을 추론함으로써 형성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는 판단자가 종합적 사고 양식을 갖고 있으면 범죄 사건의 전형성이 어떠한지가 고의성 추론에 강한 영향을 미치고, 분석적 사고를 하는 사람이라면 고의성 판단에 대한 전형성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문화적으로 한국인은 종합적 사고 양식 정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Nisbett et al., 2001). 본 연구에서도 참가자의 분석적-종합적 사고 양식의 점수( $M=4.89$ ,  $SD=.50$ )가 척도의 중앙값(1~7점 척도에서 4점)에 비해 높아 평

군적으로 종합적 사고 성향이 강함을 알 수 있다( $t_{(394)}=35.287, p<.001$ ). 이렇게 종합적 사고 경향이 높은 한국 사회에서는 행위에 근거한 범죄 판단보다는 사건 내 인물의 인성 및 도덕성 정보, 특히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의 정보가 일반적인 국민 정서에 큰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다. 다시 말해, 이는 일반 국민의 인식과 사법부의 인식 간 괴리를 설명하는 하나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사람은 종합적 사고를,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사람은 분석적 사고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Grossman & Varnum, 2011; Kraus et al., 2009; Kraus et al., 2011; Miyamoto & Ji, 2011; Na et al., 2010; Talhelm et al., 2015). 대학생 1,000명을 대상으로 한 국내 연구(김범준, 2016)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확인되었다. 이는 사회경제적 지위의 주요 요인인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분석적 사고를 하도록 훈련을 받기 때문(Witkin et al., 1977)이거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고(Oyserman & Lee, 2008) 해석되어 왔다. 그런데 사법 판단을 내리는 법관은 일반 대중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사회경제적 지위에 있다. 특히 교육 수준이 높은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법관은 한국 문화 내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종합적 사고를 가지고 있고, 이에 가해자와 피해자 간 특성과 역동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보다는 가해자의 행위에 보다 초점을 맞추어 사법 판단을 내릴 수 있다.

이러한 일반 국민과 사법부 간 사고 양식의 괴리는 고의성 판단에 대한 전형성의 영향력 차이를 불러옴으로써 일반 국민과 사법부 간의 법-감정 괴리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 사회에서 나타나는 법-감정 괴리 현상을 판단자의 사고 양식의 체계로 설명할 수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밝히는 연구는 실용적으로, 그리고 학문적으로 흥미로운 접근이 될 수 있다.

## 참고문헌

- 김범준 (2016). 사회계층의 심리: 문화적 사고 성향(분석적-종합적 사고)과 사회비교성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30(4), 19-36.
- 봉세인, 박혜경 (2016). 인상형성에서 인지양식에 따른 회석효과의 개인차: 도덕성과 유능성을 중심으로. 지역과 세계 (구 사회과학연구), 40(3), 195-216.
- 설선혜, 최인철 (2009). 분석적-종합적 인지양식과 파급효과의 예측.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3(3), 19-38.
- 안도연, 이훈진 (2016). 유학적 개념과 일상에서의 경험 조사를 통한 중용(中庸)의 심리학적 정의 도출 : 예비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5(2), 309-326.
- 안도연, 이훈진 (2017). 한국판 중용(中庸) 척도의 개발 및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6(4), 421-440.
- 최승혁 (2020). 고의성 판단에 확증편향이 미치는 영향: 범죄의 전형성 및 심각성의 역할.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26(3), 329-349.
- 최승혁, 허태균 (2020a). 형사사건에서의 고의성 판단: 도덕적 특성의 역할.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26(1), 25-45.
- 최승혁, 허태균 (2020b). 그들이라면... 그럴만



- 하지: 범죄 고의성 판단에서 도덕적 특성과 범죄 전형성의 역할.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34(2), 55-74.
- 허태균, 서신화, 김혜진, 양석주, 이종원 (2012). 한국인의 특성 연구보고서. 한국형경영연구원.
- Chiu, L. H. (1972). A cross-cultural comparison of cognitive styles in Chinese and American children.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logy*, 7(4), 235-242.
- Choi, I., Dalal, R., Kim-Prieto, C., & Park, H. (2003). Culture and judgement of causal releva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4(1), 46-59.
- Choi, I., Koo, M., & Choi, J. A. (2007). Individual differences in analytic versus holistic thinking.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3(5), 691-705.
- Choi, I., & Nisbett, R. E. (1998). Situational salience and cultural differences in the correspondence bias and actor-observer bia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4(9), 949-960.
- Choi, I., & Nisbett, R. E. (2000). Cultural psychology of surprise: Holistic theories and recognition of contradic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9(6), 890-905.
- Choi, I., Nisbett, R. E., & Norenzayan, A. (1999). Causal attribution across cultures: Variation and universality. *Psychological Bulletin*, 125(1), 47-63.
- Genschow, O., & Lange, J. (2022). Belief in free will is related to internal attribution in self-perception. *Social Psychological and Personality Science*, 13(8), 1259-1268.
- Genschow, O., Rigoni, D., & Brass, M. (2017). Belief in free will affects causal attributions when judging others' behavior.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114, 10071-10076.
- George, D., & Mallery, P. (2003). *SPSS for Windows step by step: A simple guide and reference. 11.0 update* (4th ed.). Boston, MA: Allyn & Bacon.
- Grossmann, I., & Varnum, M. E. (2011). Social class, culture, and cognition. *Social Psychological and Personality Science*, 2(1), 81-89.
- Hughes, J. S. & Trafimow, D. (2012). Inferences about character and motive influence intentionality attributions about side effects. *Britis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51, 661-673.
- Ji, L. J., Nisbett, R. E., & Su, Y. (2001). Culture, change, and prediction. *Psychological Science*, 12(6), 450-456.
- Ji, L. J., Zhang, Z., & Nisbett, R. E. (2004). Is it culture or is it language? Examination of language effects in cross-cultural research on categoriz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7(1), 57-65.
- Kraus, M. W., Chen, S., & Keltner, D. (2011). The power to be me: Power elevates self-concept consistency and authenticity.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47(5), 974-980.
- Kraus, M. W., Piff, P. K., & Keltner, D. (2009). Social class, sense of control, and social explan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7(6), 992-1004.
- Kühnen, U., & Oyserman, D. (2002). Thinking about the self influences thinking in general: Cognitive consequences of salient self-concept.

-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38(5), 492-499.
- Lee, F., Hallahan, M., & Herzog, T. (1996). Explaining real-life events: How culture and domain shape attribution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2(7), 732-741.
- Masuda, T., & Nisbett, R. E. (2001). Attending holistically versus analytically: Comparing the context sensitivity of Japanese and America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1(5), 922-934.
- Masuda, T., & Nisbett, R. E. (2006). Culture and change blindness. *Cognitive Science*, 30(2), 381-399.
- Miyamoto, Y., & Ji, L. J. (2011). Power fosters context-independent, analytic cognition.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7(11), 1449-1458.
- Morris, M. W., & Peng, K. (1994). Culture and cause: American and Chinese attributions for social and physical even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7(6), 949-971.
- Na, J., Grossmann, I., Varnum, M. E., Kitayama, S., Gonzalez, R., & Nisbett, R. E. (2010). Cultural differences are not always reducible to individual differences.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107(14), 6192-6197.
- Nadelhoffer, T. (2006). Bad acts, blameworthy agents, and intentional actions: Some problems for juror impartiality. *Philosophical Explorations*, 9(2), 203-219.
- Nisbett, R. E., Peng, K., Choi, I., & Norenzayan, A. (2001). Cultural and Systems of Thought: Holistic Versus Analytic Cognition. *Psychological Review*, 108(2), 291-310.
- Nisbett, R. E., Zukier, H., & Lemley, R. E. (1981). The Dilution effect: Nondiagnostic information weakens the implications of diagnostic information. *Cognitive Psychology*, 13, 248-277.
- Norenzayan, A., Smith, E. E., Kim, B. J., & Nisbett, R. E. (2002). Cultural preferences for formal versus intuitive reasoning. *Cognitive Science*, 26(5), 653-684.
- Oyserman, D., & Lee, S. W. S. (2008). Does culture influence what and how we think? Effects of priming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Psychological Bulletin*, 134(2), 311-342.
- Peng, K., & Nisbett, R. E. (1999). Culture, dialectics, and reasoning about contradiction. *American Psychologist*, 54(9), 741-754.
- Pennington, N., & Hastie, R. (1986). Evidence evaluation in complex decision mak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2), 242-258.
- Pennington, N., & Hastie, R. (1993). *The story model for juror decision making* (pp. 192-221).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Talhelm, T., Haidt, J., Oishi, S., Zhang, X., Miao, F. F., & Chen, S. (2015). Liberals think more analytically (more "WEIRD") than conservative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41(2), 250-267.
- Watkins, D., Regmi, M., & Alfon, M. (1990). Antecedents of self-esteem of Nepalese and Filipino college students. *The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151(3), 341-347.
- Wong On Wing, B., & Lui, G. (2007).

Culture, implicit theories, and the attribution of morality. *Behavioral Research in Accounting*, 19(1), 231-246.

Zhou, X., He, L., Yang, Q., Lao, J., & Baumeister, R. F. (2012). Control deprivation and styles of think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02, 460-478.

논문 투고일 : 2023. 05. 02

1 차 심사일 : 2023. 05. 10

게재 확정일 : 2023. 05. 18

## The Effect of Analytic-holistic Thinking Style on Intentionality Judgment: The role of crime typicality

Seheon Kim

Taekyun Hur

Seung-Hyuk Choi

Korea University

Woosuk University

This study was conducted to determine how analytic-holistic thinking style, one of the cultural characteristics, affects intentionality judgment and what role the crime typicality plays in the process. To this end, the psychological mechanism of intentionality judgment was confirmed in cases where the criminal typicality was manipulated by the moral characteristics of the crime perpetrator and victim. As a result, higher the criminal typicality lead to higher intentionality judgement. In addition, it was found that people with relatively holistic thinking style (with high causality and perception of change) judge less of the perpetrator intentionality. In particular, it was confirmed that the analytic-holistic thinking style interacts with criminal typicality and affects the intentionality judgment. Specifically, people with a holistic thinking style (high causality) judged the perpetrator to have high intentionality in typical cases, but judged in a reverse way in atypical cases. It means that, holistic thinkers, compared to analytic thinkers, strongly judge intentionality based on criminal typicality considering the moral characteristics of not only the perpetrators but also the victims. Along with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the relationships among analytic-holistic thinking style, criminal typicality and intentionality judgment were discussed.

*Key words* : analytic-holistic thinking style, crime typicality, intentionality judgment

## 부록 1. 범죄 사건 시나리오

다음 시나리오 내용 중, 밑줄 친 부분은 가해자의 도덕적 특성을 좋게 조작한 부분이고, 밑줄 친 부분 중 괄호 안의 부분은 가해자의 도덕적 특성을 나쁘게 조작한 부분이다.

본 사건은 2019년 12월 저녁 11시경, 서울 외곽의 \*\* 호프집 주차장에서 김모씨와 이모씨가 싸움을 하던 도중, 이모씨가 병 조각에 목을 찔러 경동맥 파열로 인한 과다출혈 및 쇼크로 사망한 사건이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김모씨가 이모씨를 고의로 목을 찔러 살해한 것인지, 실수로 죽게 한 것인지에 있다.

사건의 가해자인 김모씨(30대 후반, 남성)에 대한 경찰 조사 결과, 김모씨는 서울의 한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회사원으로, 평소 주변사람들에게 예의 바르고 성실한 사람이었다. 사건 당일, 김모씨는 뜻을 같이 하는 지인들과 설립한 모 고아원에 봉사활동을 마친 후, (시장에서 작은 식료품가게를 운영하며 급전이 필요한 주변 상인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고리의 이자놀이를 하는 사람으로, 평소 힘 없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주변 사람들을 없는 말로 이간질시켜 자주 물의를 일으키는 사람이었다. 사건 당일 그는) 사건장소인 \*\* 호프집에 들러 혼자 술을 마시던 중이었다. 사건 경위에 대해 김모씨는 술을 마시던 중 옆에 앉아있던 이모씨가 먼저 시비를 걸어와 싸움이 시작되었고, 이모씨가 먼저 병을 깨 들고 자신을 위협하여 자신도 방어차원에서 주변에 있던 깨진 병 조각을 주워들게 되었는데, 갑자기 이모씨가 병을 휘두르며 달려들어 자신은 급하게 뒷걸음치며 도망가다 넘어졌고, 그 과정에서 이모씨 또한 자기 위로 넘어지면서 자신이 들고 있던 병 조각에 찔려 죽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모씨의 변호인은 김모씨가 단지 살아야겠다는 생각으로 방어차원에서 병 조각을 주워들었을 뿐, 절대 일부러 이모씨를 죽이려 했던 것이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편, 이 사건으로 사망한 피해자 이모씨(30대 후반, 남성)에 대한 경찰 조사 결과, 이모씨는 주로 노인들을 속여 필요 없는 물건들을 비싼 값에 팔아 돈을 버는 사람으로, 겉으로는 예의 바르고 성실하게 보이나, 매우 이기적이고 약자에게 잔인한 사람이었다. 사건 당일 그는 사건장소인 \*\* 호프집에 들러 술을 마시던 중이었다. 검찰에 의하면, 김모씨와 이모씨는 사건 발생 30분 전쯤 비슷한 시간대에 \*\* 호프집에 들어와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붙어 싸움을 하게 되었고, \*\* 호프집 주차장에서 서로 날카로운 병 조각을 들고 상대를 위협하였다. 또한, 검찰은 깨져서 날카로워진 병 조각은 사람의 목숨을 해칠 수 있는 흉기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김모씨가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이모씨를 죽이려 마음 먹고 깨진 병 조각으로 이모씨를 찔러 죽인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따라서 김모씨가 이모씨를 고의로 살해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